

'지구'를 위한 사색의 시간...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5월 31일~6월 1일, 업사이클 뮤직 공연 등 다채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 이틀간 무등산 중심사 지구 일원에서 '제3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인문 For:rest>를 개최, 생태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지난 2018년부터 '인문도시'를 표방해 온 동구는 '시대가 묻고 인문이 답하는' 인문축제의 정체성에 따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사색의 장을 마련했다. 지구의 생태환경과 이를 둘러싼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만큼 이에 한 발 더 가까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대표 프로그램인 '생물 다양성 대탐사 생명을 기록하다'는 무등산 편백숲에 살고 있는 생물종을 찾아 나서는 시간이다. 식물, 양사·파충류, 수서 곤충 3가지 분야의 생물전문가와 함

께 편백숲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탐사 결과물은 네이처링(NATURING) 앱에 기록물로 등재될 예정이다. 현재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무등산 인문축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미션 투어 '인문 지구력 게임'은 지구에 대한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조성 퀴즈, 낱말 풀이, OX 퀴즈, 젠가 등의 게임을 통해 환경과 관련한 미션을 수행하는 시간으로 사전접수 없이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다.

무등산국립공원과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광주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과정을 학습하고, 재활용 쓰레기 분

리배출을 체험하는 '환경 캘레이도사 이클' 등 환경의 가치를 배워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쓰레기 피아노 아저씨' 이승규 작곡가가 참여하는 폐막공연도 눈여겨볼 예정이다. 이승규 작곡가는 인문축제의 주제에 맞춰 '업사이클 뮤직'을 통해 업사이클의 가치를 알리고,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사)기후행동네트워크의 비건 요리 체험, 친환경자연순환센터의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프로그램,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무등산에서 구조된 야생동물 사진전 등 지역의 기관과 단체 또한 행사에 참여해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친환경축제가 되기 위해 행사장에는 음수대를 설치, 텀블러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며,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문제다"면서 "올해 인문축제가 많은 광주 시민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경험을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전남도립도서관, 문학 상주작가와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

27일부터 윤소희 동화작가와 문학 입문과정... 선착순 참여

전남도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돼 오는 27일부터 '나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낭독과 필사'를 시작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상주작가가 도서관과 함께 문학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집필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며 도민 문학 향유 기회 제공과 문학 수요 증진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부터 선정돼 운영하는 국비 사업이다. 초보자도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는 문학 입문 과정을 통해 어휘력을 높여 글쓰기에 자신감을 갖게 하고 모든 과정이 끝나면 문집 발간과 전시회도 할 예정이다.



윤소희 동화작가는 "어린이 작가 캠프 '장래희망은 노벨문학상!'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동화작가가 되는 기회로 삼는 '업빠는 동화작가' 과정 ▲직장인과 초보자를 위한 토요특강 '일상이 문학이 되는 에세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프로그램은 상주작가 모집을 통해 선발된 윤소희 동화작가와 함께 운영한다. 윤 작가는 2005년 'MBC창작동화대상'으로 등단해 꾸준한 작품 발표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무오사화를 다룬 '붉은 보자기'와 제주 4·3사건을 다룬 역사동화 '동백꽃, 울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도서로 선정되는 등 치유와 회복에 관한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개강하는 '나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낭독과 필사' 과정은 위로와 지혜의 문장을 찾아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 29일 개강하는 '나만의 책, 어떻게 시작할까' 과정에선 내 인생의 콘텐츠로 책 쓰기와 출간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멘토링하

는 시간도 갖는다. 이 외에도 ▲어린이 작가 캠프 '장래희망은 노벨문학상!'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동화작가가 되는 기회로 삼는 '업빠는 동화작가' 과정 ▲직장인과 초보자를 위한 토요특강 '일상이 문학이 되는 에세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이번 사업은 취미부터 작가 도전까지 다양한 주제와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민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도서관 누리집(<https://lib.jeonnam.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1-288-5235)로 문의하면 된다.

이귀동 전남도립도서관장은 "지역작가와와의 협업을 통해 도서관만의 독창적인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문학적 교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혜정 기자

7인의 지역 작가가 그려낸 국립공원 월출산의 숭고함을 미디어아트로 만난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이 15일 미술관에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엔도닉 크리에이티브와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올해 4월, 영암군의 '월출산, 그 숭고함을 화폭에 담다' 프로젝트가, 지역 문화자산을 현대적 콘텐츠로 재해석하는 활동을 뒷받침하는 '전남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립공원 월출산의 숭고함 미디어아트로 만난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협약

협약에 따라 ㈜엔도닉 크리에이티브는 류재용, 박성우, 송필용, 이상호 등 7인의 지역 작가의 월출산 작품을 소재로 4분 내외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 영암군에 제공한다.

7인의 지역 작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에서 개최된 <월출산, 달이 피다> 전시회 작품

을 출품했다.

아울러 이 미디어 작품을 상영할 하드웨어인 대형 LED 패널 등도 함께 전달된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올해 10월까지 이 대형 LED 패널을 본사 로비에 설치해 11월부터 방문객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양중마도서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4일(토) 오후 3시 중마도서관 어린이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연 '사파리 매직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마술을 통해 다양한 동물을 관찰하고 교감함으로써 생태계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연은 국내외 다양한 공연 경력을 보유한 전문 공연단체 '아티컬퍼니'가 맡는

광양중마도서관, 가정의 달 특집 '사파리 매직쇼' 개최

비둘기·토끼·기니피그·뱀 등 등장... 아이들의 상상력 자극 기대

다. '아티컬퍼니'는 2018년 세계 미술 올림픽 수상 경력을 가진 마술사 한만호가 이끄는 팀으로,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 대상 공연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이번 '사파리 매직쇼'에서는 비둘기, 토끼, 기니피그, 뱀 등 다양한 동물이 등장해 마술과 어우러진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동물과의 교감을 중심으로 한 이색

적인 체험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신청은 5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lib.gwangyang.go.kr>)을 통해 선착순 80명까지 가능하다.

광양/신선호 기자



'돌과 실의 숨결, 시간으로 흐르다'展 개최

'두 예술가가 빚어낸 조용한 숨결 그 길 위의 자연이야기'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국립 운주사문화관에서 5월 24일(금)부터 7월 30일(수)까지 기획전시 '돌과 실의 숨결, 시간으로 흐르다'展을 제2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역 자연유산을 예술로 풀어낸 김준호 화백과 박영희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며, 관람객에게 '느린 감상'과 '조용한 울림'을 전달한다.

김준호 화백은 오랜 세월 자연에 의해 풍화된 운주사 석불과 화순 고인돌의 고요한 풍경을 주제로, 흑연·목탄·수묵 등 다양한 재료로 그려낸 드로잉 40점을 전시한다. 기교보다 감각에 가까운 선들은 시간의 깊이를 담고 있으며, 관람객은 작품을 통해 내면과 마주하는 깊은 사유의 여정을 경험하게 된다. 박영희 작가는 쪽·소목·감 등의 천연염료를 활용해 실과 천을 물들인 섬유 염색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자연에서 채집한 염재의 색은 부드럽고 은은하게 스며들며, 일부 작품은 염재 샘플과 함께 전시돼 '색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시각적 답변을 제공한다.

전시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먼저, '예술의 숨결, 운주사를 걷다'는 문화관 학예사가 안내하는 전시 해설과 함께 실제 운주사 유적을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5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매주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지역 예술과 유산을 연계한 입체적 감상을 제공한다.

화순/김종환 기자

국민의 마음을 위한 정책사업

보다 나은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